

Young Ho Lee*, Jong Dae Ji, Seong Jae Choi, Jong Guk Kim¹, Gwan Gyu Song

Divisions of Rheumatology and Gastroenterology¹,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, College of Medicine, Korea University.

Objective: *Helicobacter pylori* (*H. pylori*) is one of the most common bacterial infections in humans, but little is known about the association between *H. pylori* infection and rheumatic diseases.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incidence of *H. pylori* infec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iter of IgG anti-*H. pylori* and clinical variables in rheumatic diseases. **Methods:** IgG anti-*H. pylori* was measured by ELISA in 43 serums from patients with rheumatic diseases: rheumatoid arthritis (RA, n=18), miscellaneous group (MI, n=13):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(n=5), spondylarthropathies (n=4), Behcet's disease, gout, scleroderma, polymyositis, antiphospholipid antibody syndrome (respectively one patient, n=5), and osteoarthritis (OA, n=12) as a control. Laboratory variables such as ESR, CRP, WBC, platelet count, and hemoglobin were measured at the same time. Results were correlated with clinical and laboratory variables.

Results: IgG anti-*H. pylori* was positive in 13 (66.7%) of RA patients, 8 (61.6%) of MI group, and 6 (50%) of control patients.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mean titers of IgG anti-*H. pylori* among RA patients, MI group, and control patients (16.5 ± 3.3 u/ml, 16.3 ± 4.2 u/ml, and 10.9 ± 3.5 u/ml, respectively) ($p=0.50$). IgG anti-*H. pylori* titers were correlated with ESR in 43 patients with rheumatic diseases ($r=0.348$, $p=0.03$), but not with age, disease duration, CRP, WBC, platelet count, hemoglobin and RF titer ($p > 0.05$).

Conclusion: Our data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of IgG anti-*H. pylori* among rheumatic diseases, but IgG anti-*H. pylori* titers correlated with ESR.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determine the association between *H. pylori* infection and rheumatic diseases.

건강 검진 환자에서 만성피로의 빈도와 임상양상

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

지중대*, 최성재, 이영호, 송관규

목적: 피로는 일차진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의 증상중 7번째로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일반 성인의 약 24%가 2주 이상의 피로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또 피로를 가지고 있다고한 성인의 약 59-64%에서 의학적 원인이 없으며 일차진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중 약 24%에서 지속되는 피로를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되며 이들중 많은 환자들이 6개월이상의 만성피로를 가지고 있다. 이에 저자들은 건강 검진을 위해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만성피로와 만성피로 증후군의 빈도 및 임상양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.

방법: 1998년 3월 21일부터 1998년 6월 3일까지 고려대학교 부속 안암병원 건강 검진 센터에 건강 검진을 위해 내원한 환자 530명중 만성피로증후군의 1994년 CDC 진단기준에 준하여 자체 제작한 설문지를 통해 만성피로 및 만성피로 증후군에 합당한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외에 의한 문진 및 이학적 검사와 실험실 검사를 통해 진단하여 분석하였다.

결과: 1) 건강 검진을 위해 내원한 환자 530명중 10예(1.9%)에서 만성피로증후군의 1994년 CDC 진단기준에 해당하였다. 만성피로증후군의 진단기준에는 맞지않았지만 원인이 6개월이상의 만성피로를 보였던 경우는 113예(21.3%)였고 피로의 원인이 있었던 경우는 106예였다. 6개월미만의 피로를 보였던 경우는 187예였고 피로가 없었던 경우는 114예였다.

2)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진단된 환자중 남녀모두 5명이어서 남녀비는 1:1이었다.

3)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진단된 환자의 증상으로는 단기간의 기억력 감퇴나 정신집중장애(90%), 인후통(20%), 압통이 동반된 경부 또는 액와부 임파절(30%), 근육통(80%), 다발성 관절통(20%), 두통(50%),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 수면(100%),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파로후 전신 무력감(90%)을 보였다.

결론: 건강 검진을 위해 내원한 환자중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진단된 환자는 1.9%였고 남녀비는 1:1이었다.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미국의 0.1%에비해 매우 높은빈도로 이는 건강검진을 위해 3차병원에 내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것에 영향을 받았을것으로 생각된다.